MARKET
STRATEGY

2026. 4. 24.

글로벌투자전략팀

권범석 선임연구원
beomseok.kwo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K-증시 투자 전략 노트

Vol. 2: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대대적 변화 전망
- 미국산 LNG 및 중동 이외 지역의 중질유 중심 공급망 재편 기대
-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K-조선주에 관심

- **이란 전쟁이 바꿀 에너지 공급망,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중동산 원유/LNG 공급 대란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물량이 대략 20% 줄면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 해상 물동의 병목이 되는 '글로벌 초크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도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등 8군데. 유럽 국가들은 러우전쟁을 겪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에 진통을 겪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중동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 일련의 사태는 관련 국가에게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닌 에너지 안보 경각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은 미국산 LNG 및 중동 이외 지역의 중질유 수입일 것으로 판단
- 이란 전쟁 이전에도 한국의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미국산 LNG 장기계약을 대폭 확대한 바 있음. 미국의 LNG 액화 플랜트 생산능력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 증가할 예정. IEA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170.8bcm(≈1.3억톤)의 CAPA를 추가할 예정.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 303조를 시행. 이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많이 늘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
- LNG 이외에도 원유 측면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중질유 수출량은 상승 추세에 있고, 중질유 위주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은 지난 3월에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따른 K-조선 수혜 기대:** 미국산 LNG 수출 확대와 원유 수입 공급망 다변화로 국내 조선주 수혜 기대. 이미 조선 3사의 수주잔고가 3-4년가량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 다만, 이는 1) 노후선 교체, 2) IMO 친환경 규제, 3) 예상보다 양호한 선박 수요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 이에 더해,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수혜가 장기화될 가능성 고려할 필요. 미국 LNG 수출 증가는 LNG 캐리어 발주를 직접적으로 촉진. 추가로, 비중동 국가 원유 수출 증가로 탱커선 발주 증가 가능성 제시
- '중동-아시아' → '북미-아시아' 경로 전환에 따른 톤-마일 증가도 수혜 요인. 한국의 경우 가스 운반 시 기존 '중동-한국' 경로는 5,000~6,000해리 수준이나, '미국 Gulf Coast-한국' 경로는 희망봉 통과 시 15,800해리, 파나마 운하 통과 시 10,068해리로 약 2~3배 길어질 것으로 판단. 톤-마일 증가는 선박 수요 증가로 귀결
- 추가로, 한국 증시에서 조선은 반도체와 함께 이익 증가에서 또 하나의 축을 담당. 2026년은 한국 증시에서 단연 반도체의 증익이 주목받고 있지만, 2027년 조선 업종의 순이익 증가율은 반도체를 상회. 반도체가 AI 수요로 성장한다면, 조선은 '에너지 안보 부상 및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성장 기대

Complianc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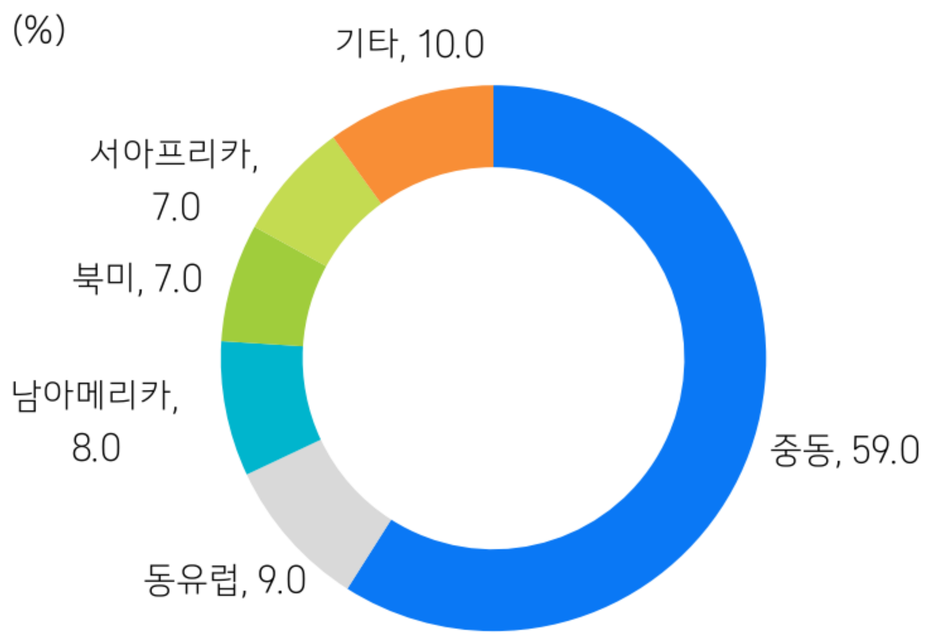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이란 전쟁이 바꿀 에너지 공급망,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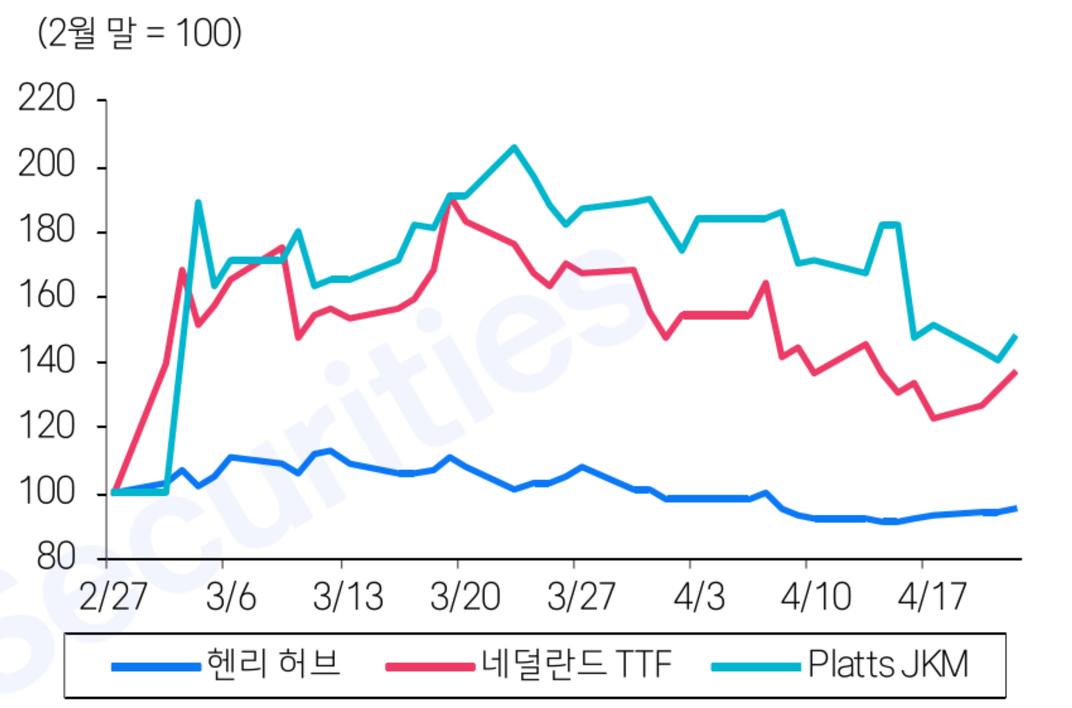
중동산 원유/LNG 공급 대란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물량이 대략 20% 줄면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 2월 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WTI유가는 기존 60불 대에서 4월 현재 80~110불 수준에서 등락 중. 유럽 LNG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는 2월 말 이후 4월 22일 기준 36.6% 상승했고 아시아 LNG 가격 지표인 Platts JKM은 48.1% 급등.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는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닌 에너지 안보 위기로 확산

그림 1. 아시아 지역별 원유 수입 비중



자료: Reuters 'Why is Asia so reliant on Middle Eastern oil?', 삼성증권

그림 2. 글로벌 LNG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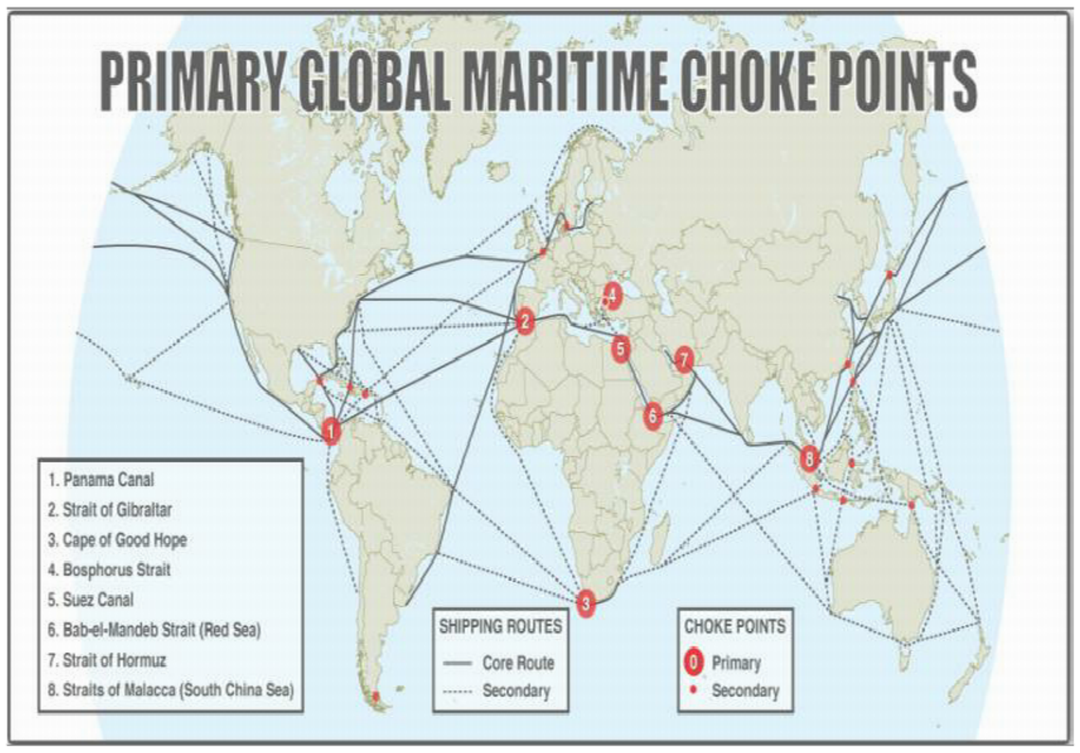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해상 물동의 병목이 되는 '글로벌 초크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도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등 8군데. 유럽 국가들은 러우전쟁을 겪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에 진통을 겪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중동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 이들 국가에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국가적 과제로 주어진 상황.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은 미국산 LNG 및 중동 이외 지역의 중질유 수입일 것으로 판단

이란 전쟁 이전에도 한국의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미국산 LNG 장기계약을 대폭 확대한 바 있음. 작년 8월 한국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연간 330만톤 규모로 도입할 것을 계약. 이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LNG 총 수입량 3,428만톤 대비 9.6% 수준. JERA의 경우 작년 6월 미국으로부터 연간 최대 550만톤의 LNG를 20년간 조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 이는 JERA의 2025회계연도 LNG 처리 물량인 약 3,500만톤의 15.7% 수준

그림 3. 글로벌 초크 포인트(Global Choke Point)



자료: American Journal of Transportation, 삼성증권

그림 4. 트럼프 행정부 국방물자생산법(DPA) 303조 시행 내역

THE WHITE HOUSE
WASHINGTON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303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Grid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Supply Chain Capacity
Presidential Actions, Presidential Memoranda | April 20, 2026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303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Deployment of Large-Scale Energy and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Presidential Actions, Presidential Memoranda | April 20, 2026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303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Natural Gas Transmission, Processing, Storage, and Liquefied Natural Gas Capacity
Presidential Actions, Presidential Memoranda | April 20,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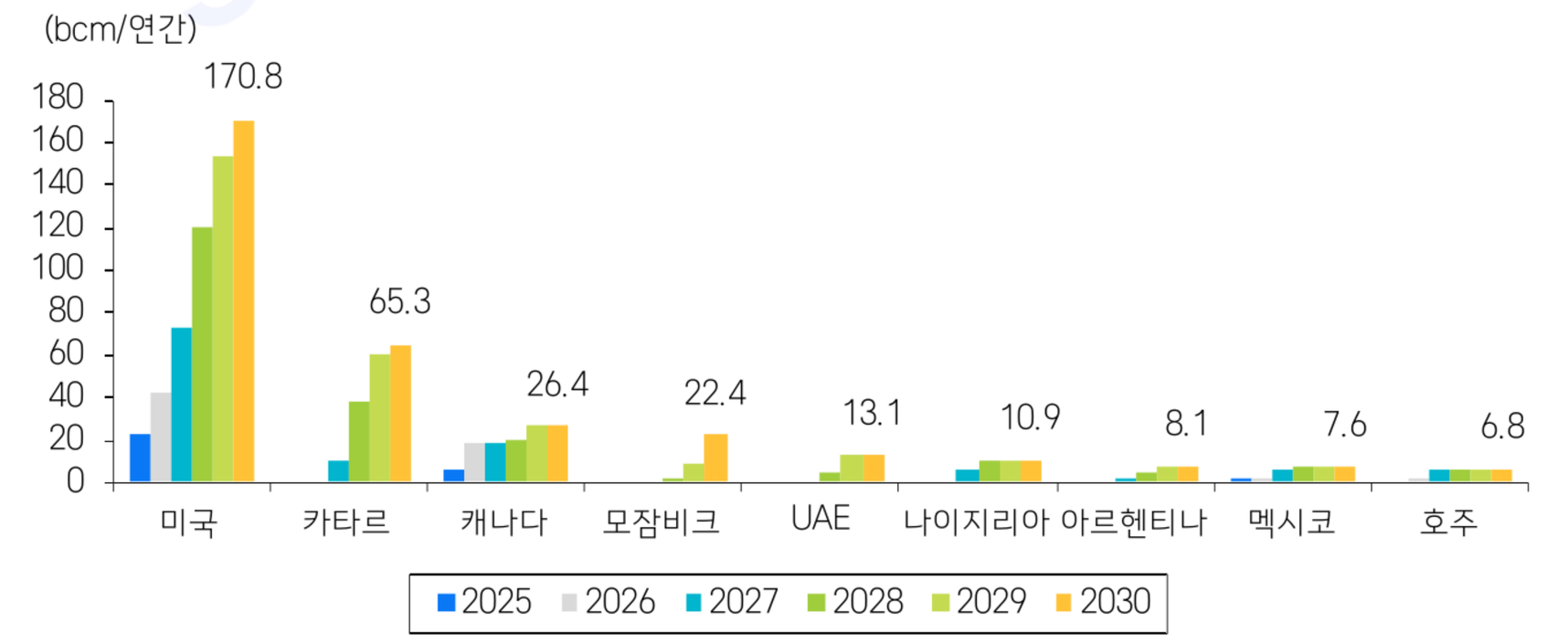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303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Coal Supply Chains and Baseload Power Generation Capacity
Presidential Actions, Presidential Memoranda | April 20, 2026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303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Domestic Petroleum Production, Refining, and Logistics Capacity
Presidential Actions, Presidential Memoranda | April 20, 2026

자료: The White House, 삼성증권

미국의 LNG 액화 플랜트 생산능력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 증가할 예정. IEA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170.8bcm(≈1.3억톤)의 CAPA를 추가할 예정. 이는 주요 생산국인 카타르(65.3bcm≈4,900만톤), 캐나다(26.4bcm≈1,980만톤), 호주(6.8bcm≈510만톤)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 303조에 근거해 1)전력망 인프라, 2)에너지 인프라, 3)천연가스 및 LNG 시설, 4)석탄 공급망, 5)석유 인프라에 연방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 '25년 1월 미국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연방정부는 인허가 절차, 경제성 검토,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금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 이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많이 늘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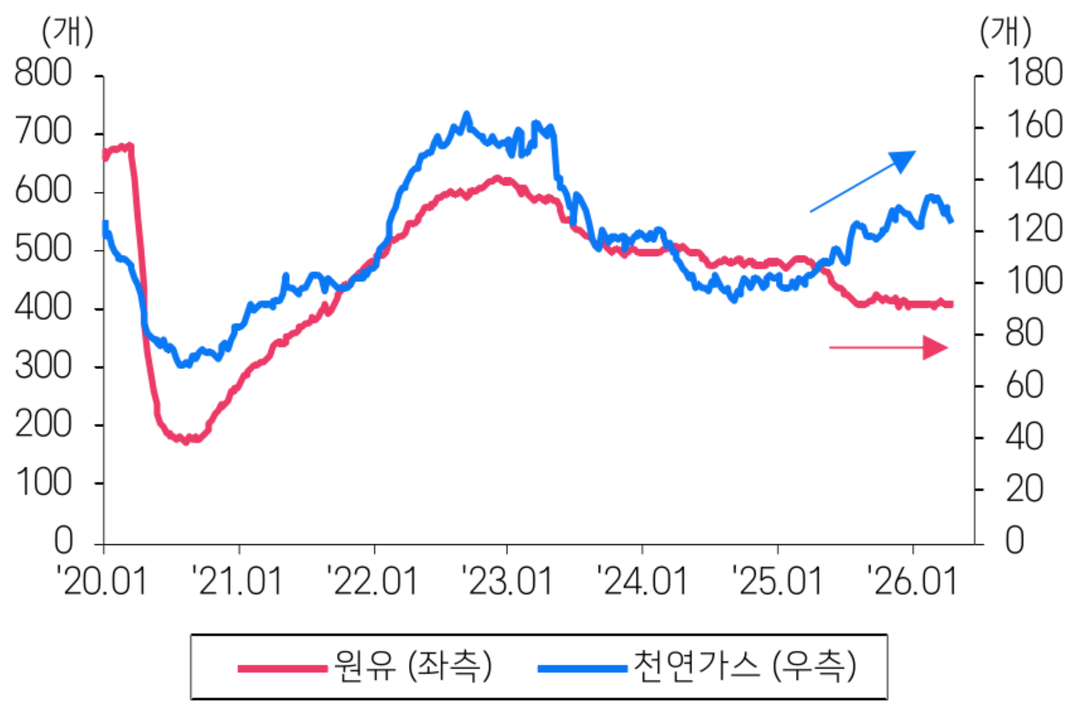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국가별 누적 LNG 액화 플랜트 증설 전망



참고: Post-FID 기준
자료: IEA,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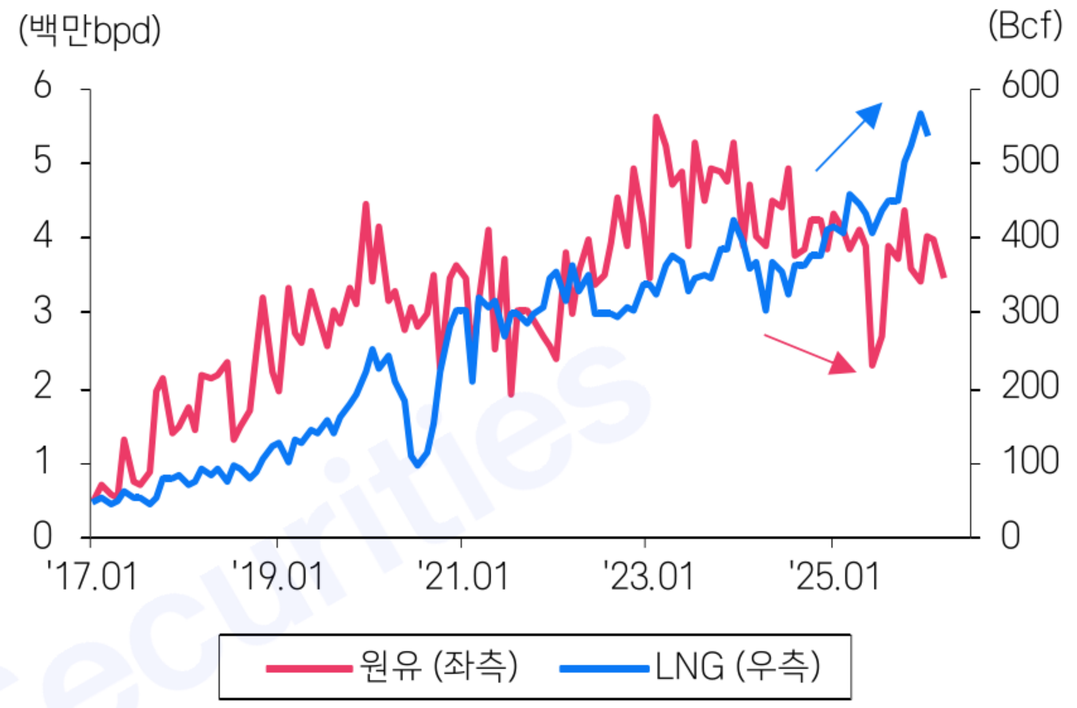
LNG 이외에도 원유 측면을 살펴보면 경질유 위주의 미국 셰일 오일은 Rig count, 원유 수출액 성과를 볼 때 상승 추세는 아닌 것으로 확인. 반면, 캐나다의 중질유 수출량은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고, 중질유 위주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은 지난 3월에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캐나다의 Oil Sand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고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시추 시설을 수년 안에 원복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캐나다/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그림 6. 베이커 휴즈 미국 리그 카운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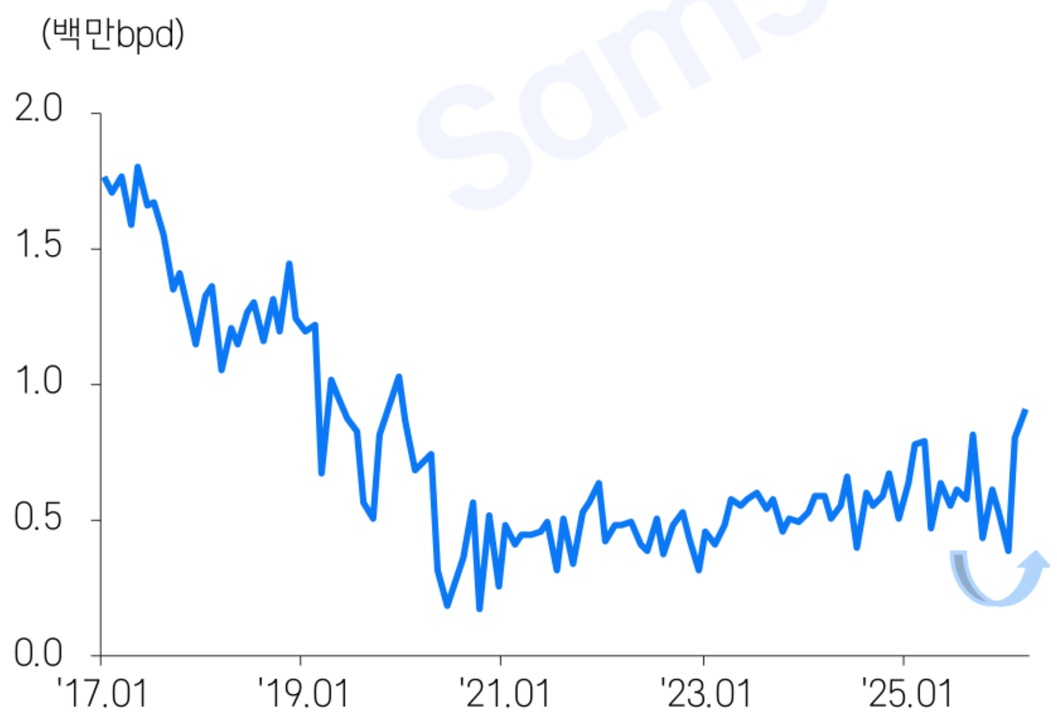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7. 미국 원유/LNG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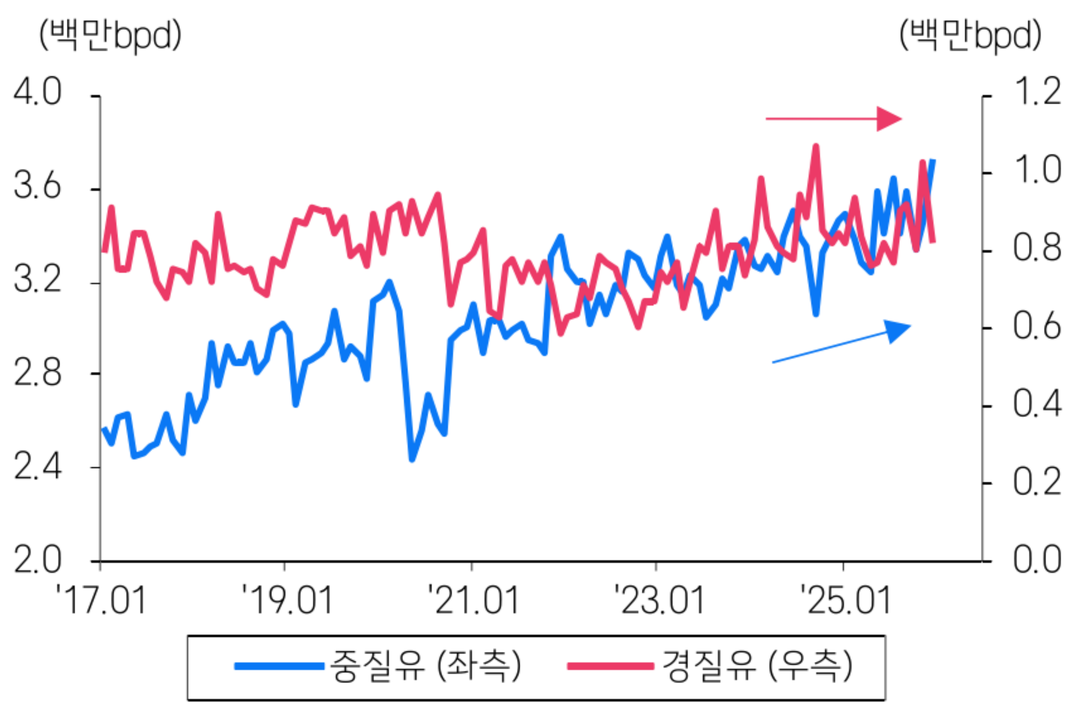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8.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9. 캐나다 원유 수출량 추이



자료: CER, 삼성증권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따른 K-조선 수혜 기대

미국산 LNG 수출 확대와 원유 수입 공급망 다변화로 국내 조선주 수혜 기대. 이미 조선 3사의 수주잔고가 3-4년가량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 다만, 이는 1) 노후선 교체, 2) IMO 친환경 규제, 3) 예상보다 양호한 선박 수요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 이에 더해,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수혜가 장기화될 가능성 고려할 필요. 미국 LNG 수출 증가는 LNG 캐리어 발주를 직접적으로 촉진. 추가로, 비중동 국가 원유 수출 증가로 탱커선 발주 증가 가능성 제시

'중동-아시아' → '북미-아시아' 경로 전환에 따른 톤-마일 증가도 수혜 요인. 한국의 경우 가스 운반 시 기존 '중동-한국' 경로는 5,000~6,000해리 수준이나, '미국 Gulf Coast-한국' 경로는 희망봉 통과 시 15,800해리, 파나마 운하 통과 시 10,068해리로 약 2~3배 길어질 것으로 판단. 톤-마일 증가는 선박 수요 증가와 운임 상승으로 귀결.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 차질로 Baltic Dirty Tanker Index(원유), Baltic Clean Tanker Index(석유제품) 등 에너지 관련 운임 지표는 급등한 바 있음. 미국-이란 협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운임 지표 단기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나, 운임 지표 급등은 선박 수요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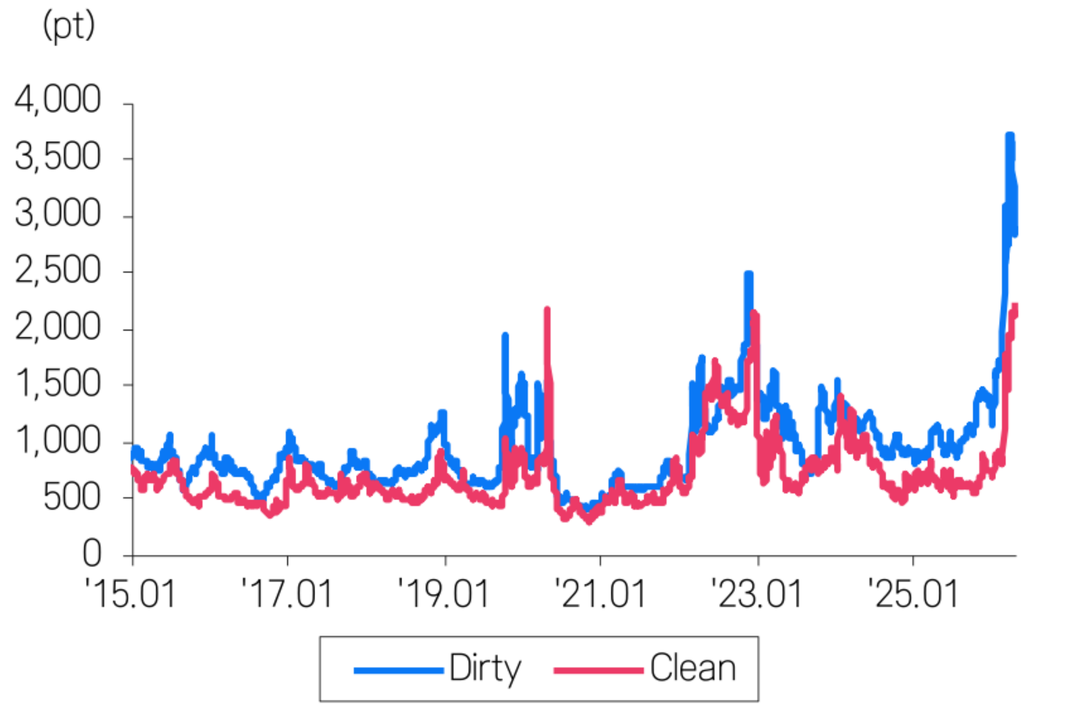
추가로, 한국 증시에서 조선은 반도체와 함께 이익 증가에서 또 하나의 축을 담당. 2026년은 한국 증시에서 단연 반도체의 증익이 주목받고 있지만, 2027년 조선 업종의 순이익 증가율은 반도체를 상회. 반도체가 AI 수요로 성장한다면, 조선은 '에너지 안보 부상 및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성장 기대

표 1. 한국가스공사 장기계약 도입국 및 항구 현황

선적 국가	선적항	하역항	편도거리(Nmile)
미국 (케이프)	Port SabinePass	인천항, 평택항 통영항, 삼척항	15,800
미국 (파나마)	Port SabinePass		10,068
카타르	Port RasLaffan		6,156
오만	Port Qalhat		5,634
호주	Port Gladstone		4,185
인도네시아	Port Donggi		2,452
러시아	Port Prigorodnoye		1,350

참고: 2025년 8월 11일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삼성증권

그림 10. Baltic Dirty/Clean Tanker Index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11. 주요 업종 2026년 vs 2027년 순이익 비교

업종	2026년		2027년	
	순이익 (조원)	증가율 (%)	순이익 (조원)	증가율 (%)
반도체	407.9	401.2	500.0	22.6
상사,자본재	37.1	107.7	42.1	13.5
자동차	28.0	8.8	30.7	9.6
은행	25.7	7.8	27.3	5.9
조선	11.4	56.8	14.1	24.5
유틸리티	10.5	-2.2	12.2	16.2
증권	11.7	26.6	11.0	-6.0
보험	7.9	0.8	8.6	7.8
에너지	5.9	99.9	8.3	41.3
소프트웨어	6.7	8.6	7.8	15.7

참고: 4월 22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sie,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